

## 1 본회소식



### 최초 해외지부 남가주지부

#### 지부장에 한석란 동문

본회 권영걸(69응미) 회장은 지난 10월20일 집무실에서 한석란(71조소/남가주서울대미대동창회장) 동문에게 미국 남가주지부 지부장 선임장을 전달했다. 200여명의 동문이 소속되어 있는 남가주지부는 매년 개최하는 동문전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에 공식 인정됨에 따라 본회 최초의 공식 해외지부가 되었다. 권회장은 선임장을 전달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하고 앞으로 활발한 협력을 통해 남가주동문들과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본회는 이번 남가주지부를 거점으로 앞으로 미 서부·동부 지부와 미국지회를 결성한 뒤, 나아가 전 세계에 지부를 결성해 이를 통해 동문들이 교류협력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날 지부장에 선임된 한동문은 "그동안 흩어진 동문들의 화합과 상생의 역사를 창조하는데 작은 초석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 앞으로 저희 지부에 있는 동문들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시작이 동문들 간에 서로 돕는 단단한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동문은 모교 졸업 후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교와 피츠버그대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76년에는 오스웨그미술공모전 수석상, 포틀랜드주립대학교 장학경연미술제 장학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남가주 동문들의 활동의 중심역할을 하고있는 LA 할리우드지역에 있는 'S-갤러리(S-Gallery)'는 최근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 새로 오픈한 최신 시설의 갤러리로, 5개 전시홀에 총 6,000스퀘어피트



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이같이 넓은 전시 공간을 활용해 올해 열린 제18회 남가주서울대미대동문전은 예년보다 2배 가량 많아진 총 1백여점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다. 또한 오는 11월6일 부터는 한 달간 남가주 동문 13인전이 열릴 예정이다. S-갤러리 대표 한귀희(68회화) 동문은 "S-갤러리는 한인타운내 제1관에 이어 한인타운에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제2관을 오픈했다"며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서울대 출신 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비영리 단체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한동문은 서울대남가주총동창회장과 남가주서울대미대동창회장을 역임했다.

## 서울미술나눔 장학기금마련전

11.10-22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



본회가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이희범)와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사장 권영걸)이 주관하는 '서울미술나눔 장학기금마련전'이 오는 11월10일 수요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서울 마포구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된다. 본회 산하 에스아트플랫폼은 범 시각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 궁극적으로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지난 2019년 8월 창립됐다. 이번 서울미술나눔 장학기금마련전은 서울대 동문들에게 특별할인가로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작품 판매를 통해 거둔 수익금을 총동창회 장학기금 및 미대동창회 창작지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후배 재학생들과 동문 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시관람은 무료/ 카드결제 가능)

- ▶ 전시기간: 2021년 11월 10일(수) - 22일(월)
- ▶ 전시장소: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서울 마포구 새창로 7, 2F)
- ▶ 관람시간: 10:00-19:00

## 온라인 해외동문작가초대전 개최

본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동문작가들의 빛나는 활약을 한국에 소개하고 자료화 하고자, 그 첫 번째로 북미동문작가들의 작품전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모교 졸업 후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해온 동문 34명의 작품 약 100점 및 약력이 소개되었다. 본회 창립 후 처음으로 시도된 해외동문작가초대전에 동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특히 남가주서울대미대동창회 한석란(71조소)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전시가 이뤄지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더불어 동창회 발전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동창회비를 모아 납부하기도 했다. 온라인 전시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었으며 매일 1백여명의 접속자가 집계되어 전시 기간동안 3천여명이 접속해 관람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번 온라인전에 참여한 동문은 아래와 같으며, 온라인전이 종료된 후 모든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아카이브에 수록될 예정이다.

고상미(96산디) 김경애(83동양) 김경옥(61회화) 김구자(61응미) 김용재(04서양) 김현정(94조소) 노성인(73조소) 박다애(73회화) 박영구(84서양) 박재은(63회화) 백혜란(70회화) 서동현(67회화) 성수환(59조소) 신덕재(60조소) 신정연(61회화) 신혜자(61응미) 심영자(61조소) 오계숙(59응미) 오성주(61회화) 유부강(61회화) 윤태자(62회화) 이명규(73조소) 이민정(03조소) 이상훈(02동양) 장연탁(60조소) 장원경(73응미) 최국강(62응미) 최영일(72회화) 최혜명(61회화) 최희권(58응미) 한기옥(62조소) 한석란(71조소) 홍선애(62회화) 황영애(67조소)

## 남가주 동문 13인전

미국 남가주 동문 13인전이 11월6일 부터 한 달간 LA 할리웃 지역에 있는 'S-갤러리(S-Gallery·대표 한귀희)'에서 열린다.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던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는 때에 맞춰 준비된 이번 전시회는 신작으로 준비됐으며, 지난 5월 전시회에 이은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되는 남가주동문전이다. 성수환(59조소), 김구자(61응미), 윤태자(62회화), 심영자(61조소), 서동현(67회화), 황영애(67조소), 한석란(71조소), 백혜란(70회화), 장원경(73응미), 이명규(73조소), 박다애(73회화), 김경애(83동양), 이상훈(02동양) 동문 등 13명의 25개 작품이 출품된다. 조각, 공예, 서양화 및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남가주동문전은 59학번 동문에서 02학번 동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작가들이 참가한다. 가을 동문 13인전이 열리는 S-갤러리의 옆 전시실에서는 동문들의 상설 전시된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11월6일 토요일 오후 4시 S-갤러리 야외 잔디정원에서 오프닝 리셉션이 열릴 예정이다. S-갤러리 서울대미대동문전 문의 (818)808-8185

## 에스아트몰 시범운영

본회 산하 비영리 법인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사장 권영걸)이 에스아트몰을 오픈한다. 에스아트몰은 에스아트플랫폼(이하 SAP) 회원들의 작품 및 아트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함으로써 회원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쇼핑몰이다. 현재 1차로 지난 10월31일까지 SAP회원들을 대상으로 100만원 이하의 작품의 등록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SAP(02-877-8065)으로 문의.



## CIEL DESIGN

인간과 자연, 예술을 사랑하는 (유)시엘 디자인 입니다.

도시민들의 문화향유와 휴식공간 조성 등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기업 정신입니다.

시엘 디자인은 인간, 자연,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경관디자인 실현을 위해 디자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 전북 김제시 두월로 279-12

전화 : 063-547-3200

1공장 : 김제시 봉황공단2길 78-37

H.P : 010-4653-6863

2공장 :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로 119-21

E-Mail: ciel3200@hanmail.net

(유)시엘 대표 김형기 청동, 알루미늄, 스텐 주물, 원형 점토 작업, 석조각, 제작 시공 업체

서울대미술관 소식



가득한 빈 곳

전시일정 : 2021.10.25 월 - 2022.2.26 토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외래갤러리  
 주최 :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대학교병원  
 참여작가 : 이시현, 정성윤(00동양)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그리지 않는가는 화가가 하는 가장 큰 선택 중 하나이다. 보는 입장에서조차 시야의 모든 것에 집중할 수는 없어서 풍경이든 회화든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 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빈 공간에 유독 시선이 가고 그 인상이 오래 남는 이시현, 정성윤 두 작가의 회화를 소개한다. 일견 빈 듯한 평면은 설명적인 묘사가 생략되었을 뿐, 캔버스 천과 안료가 스며들듯 때로는 묵직하게 채워져 있다. 그 공간을 둘러싸고 친숙한 일상 속 상황이 지극히 정제된 형태로 재현되어서 나의 시선이 화가의 시선인 듯 화면 안으로 초대된다. 이러한 특징들이 '홀로 온전히 느끼

는 정서'과 '여백의 가치'라고 일찍이 평단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전시가 관람객 각자가 회화와의 마주침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 Hidden Exhibition in Seoul  
 누락된 의제 - 오디세이, 포스트-코로나로 가는 길목에서

일시 : 2021년 9월10일 - 11월2일  
 장소 : 서울대학교미술관 전시실1-4  
 전시부문: 사진, 영상 100여 점  
 참여작가: 구성수, 김규식, 마사 로슬러, 멜라니 풀런, 백승우, 브루노 조르잘, 안 밍가드, 어윈 올라프, 원성원, 임안나, 조지 오소디, 정주하, 파브리스 몬테이로, 피파 바카

제 16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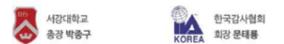
서강대 경제대학원  
 글로벌 EnH 최고위 과정

미래경영자를 위한  
 글로벌(Global), (Ethics), & (Humanity)

Genh.kr  
 서강대학교 글로벌 EnH 최고위 과정  
 02)705-7914 / genhsogang@hanmail.net  
 041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계페르트 남덕우경제관 글로벌 EnH최고위과정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글로벌 미래, 윤리경영·인문학(G-EnH) 최고위과정에 초청합니다.  
 본 과정은 기업의 윤리의식, 사회적 책임과 준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과 한국감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바이든 시대, 대격변의 글로벌 환경에서 리더는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 글로벌 경제와 준법 경영, 인문학과 건강을 융합한 G-EnH 최고위과정은 서강학파로 명성 높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와 교수들과, 경영, 인문, 철학, 역사, 과학, 건강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을 강사로 모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본 과정은 최고 감사인으로서 요구되는 건전한 거버넌스 등의 필요 요소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융합을 통한 윤리준법에 대한 가치관을 배양하는 글로벌 윤리경영의 최고 심화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동참하시어 그동안 배출된 1,000여 명의 저명하고 훌륭한 원우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ECA(Ethics Compliance Auditor)' 회원자격이 부여되며 감사협회 회원인 경우 '윤리준법 감사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환영합니다.



NewerArT  
 새 시대 아트 스튜디오

대표이사 유영쾌

Cell : 010-5229-4583  
 Tel : 031-902-1597  
 Fax : 031-901-1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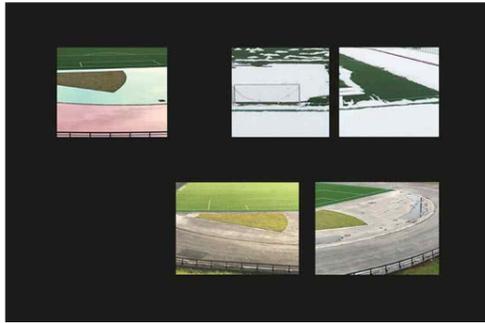
본 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61번길 77 한신메트로폴리스 2층 207호  
 공 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05번길 96-6 가동

E.Mail : ssd88s@naver.com  
 Homepage : www.newerart.com  
 인스타그램 : @newerart\_studio



서울대 소식

아트월(Art Wall) 전시



지난 8월31일부터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 잔디광장 공사 가림막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바로 학생처가 주관한 잔디광장 아트월(Art Wall) 전시로, 지난 6월 학생들에게 공모해 최종 당선된 작품들이 전시된 것. 삭막했던 공사장이 멋진 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된 이번 전시는 잔디광장 가림막이 철거되는 내년 봄까지 유지된다. 지난 4월 첫 삽을 뜬 잔디광장 공사는 2022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8m 높이의 가림막이 공사 기간 중 보행자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 답답한 느낌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가림막을 야외전시장으로 꾸몄다. 많은 작품들이 서울대를 주제로 했지

만 작가에 따라 작품세계는 천차만별이다. 미술전공을 하지 않은 공대나 인문대 등 비전공자의 작품도 많아 각자의 전공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발견하는 것도 관람의 또 다른 재미다. 모교에서는 박유현(17서양) 학생과 최예원(20동양) 학생이 각각 장려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유현 학생의 'playing field'(왼쪽사진)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운동장의 모습들을 모아 무심코 지나치던 학교의 풍경으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했다. 최예원 학생의 'A piece of cake'(오른쪽사진)는 부드러운 먹과 녹빛 한지가 조화를 이루는 케이크 형상을 통해, 긴 팬데믹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들을 한 조각의 디저트 같은 편안함의 세계로 초대한다. '코로나 학번'인 그에게 잔디광장은 입학 직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가했던 새내기OT가 있었던 공간이기에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는 "소중한 공간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어 기뻐고 새로운 잔디광장에서도 좋은 추억을 쌓아갈 것이 기대된다"며 소감을 전했다.



문화관리모델링 공모전 당선작

지난 9월13일 기획과에서 주최한 '문화관 리모델링 및 증개축 국제설계공모전'의 당선작이 발표됐다. 당선작은 운생동건축사사무소의 'VINEYARD SCAPE'로, 내부는 일반 공연장, 블랙박스 공연장, 공방들로 구성하고, 빈야드 구조를 공연장을 포함한 건축 전체에 적용해 외부에도 계단, 테라스, 옥상공간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건축학과 김승희 교

수는 "공연장으로서의 기능 수행과 주변 공간과의 조화가 중요 평가 기준이었다"라며 "공연장 및 부속 공간들이 잘 설계됐으며, 주변의 잔디광장과도 어울렸기에 해당 계획안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라고 심사평을 남겼다. 문화관은 1985년 4월 8일 개관한 이래로 △총장 아취임식 △교직원 정년식 △음대 오페라 △예술주간 행사 △화요음악회 △각종 동아리 공연 등을 개최해 왔다. 문화관 리모델링에 대해 기획과 관계자는 "학내 자유로운 창작과 체험, 지식의 공유와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사업 의도를 밝혔다. 시설기획과에 따르면, 문화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으로 설계비 포함 약 6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공사는 2022년 말에 시작해 2025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새롭게 탄생할 문화관은 개방과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운생동건축사사무소 장윤규 대표는 "문화관 통로를 개방하면 공연 외에도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소모임을 하는 등 문화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공방과 블랙박스 공연장 등 문화관 내부 시설을 외부에서 볼 수 있고, 동시에 문화관 야외 시설에서도 잔디광장을 무대처럼 바라볼 수 있다"라며 "문화관이 소통의 공간으로 활성화되면 잔디광장도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문화관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건물 일부에 추가 구조물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리모델링된다. 김승희 교수는 "새로운 문화관은 공연장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면수업 시작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서울대가 대면 수업을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위드코로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0월17일까지 점진적 이행 및 준비를 가진 모교는 18일부터

본격적인 대면 수업 기조로 전환하여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별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대면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애초엔 이번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대폭 늘리려 했으나, 개강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이 맞물리면서 9월 한 달 동안 비대면 수업 기조를 유지했었다. 교내 인구 분산과 관련해 모교는 특정 공간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교내 밀집도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서울대 캠퍼스맵' 앱에 탑재시켰다. 또한 교내 식당 이용객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운영시간 연장과 포장판매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오 총장은 지난 9월15일 담화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에 익숙해져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 서울대 예술주간



지난 10월25일부터 29일까지 '2021 서울대 예술주간'이 열렸다. 학내 및 지역사회에 학내 구성원들이 가진 예술적 역량을 펼치는 목적으로 열리는 예술주간은 2015년부터 올해로 7년째 개최되고 있다. 2020년 예술주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학내 구성원들에게 문화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면 비대면 행사를 병행했다. 문학공연, 음악 공연, 미술전시, 학생공연 등 다양한 예술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그 중 미술전시는 설치미술, 회화, 공예 부문 27개의 전시가 이뤄졌다. 학생지원과는 문화체육관광부, 관악구, 서울시와 협의해 문화관 내에서 대면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 외의 공연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홈커밍데이 온라인개최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이희범)는 지난 10월15일 온라인으로 제42회 홈커밍데이 겸 동문화합한마당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버들골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발전기금과 공동주관으로 온라인 개최를 결정했다. 2년 연속 불발된 만남에도 많은 동문들이 협찬금과 협찬품을 보냈다. 총동창회 이희범 회장이 300만원 상당의 65인치TV 1대, 이준용(56경제/대림산업 명예회장) 고문이 300만원, 류지영(ALP20기/전국회의원) 동문이 200만원 등 동문 1800여명이 총 2억2천만원 상당의 협찬금과 협찬품을, 서울대 오세정(71물리) 총장이 도자기컵세트 100개를 지원했다. 이날 오전11시 서울대총동창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된 행사는 약40분간 사전 제작한 영상을 방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명호(61토목) 미주동창회장이 LA에서 보내온 영상편지를 비롯해 각 동창회장을 포함한 각계 동문들이 보내온 축하메시지로 문을 열었다. 대운동장과 관정도서관 앞, 지하연, 미술관 등 관악캠퍼스의 명소를 배경으로 서울대 아카펠라동아리 인스트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매해 홈커밍데이를 열었던 버들골 풍산마당 등 모교 곳곳의 전경을 시원하게 담아내 캠퍼스를 찾지 못하는 동문들의 아쉬움을

을 달랐다. 이희범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에는 꼭 버들골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학창시절을 회고하고, 서울대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길 희망했는데 또 한 번 비대면 행사를 하게 됐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선물과 금품도 아낌없이 협찬하면서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다"며 감사를 전하고 "오늘 이 시간 많이 웃고 즐거워하며 학창시절로 돌아가 행복한 기쁨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정 총장은 동문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하며 모교 소식을 전했다. "서울대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면 수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고, SNU 홀딩스를 설립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재원 확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동문 여러분께서 조연자이자 후원자로, 또 참여자로서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하공연으로 동문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음대 중창단과 소프라노 정혜린(16성악) 동문이 '그리운 금강산', '10월의 어느 멋진 날' 등을 열창했다. 실시간으로 200여명이 시청한 이날 홈커밍데이 영상은 유튜브 서울대총동창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행운권 추첨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익명의 동문 총 1억5100만원 기부

익명의 동문이 지난 9월23일 총동창회에 장학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사양하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1억5100만원을 기부해온 해당 동문은 재학생 후배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종현·신갑순 특지를 운영 중인 이종현(59경제) 덕인 회장과 부인 신갑순씨도 9월 1일 5천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총 기부액이 1억여원에 이른다. 이동문은 석고붕대(김스붕대), 합성캐스트, 합성스프린트, 탄력붕대 등을 제조하는 덕인양행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5천만원을 기부하고 20년 가까이 후배 재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해 왔다. 새로운 특지장학금이 생기기도 했다. 박흥일(60영교) 동문은 9월에 2천만원을 추가 기부해 총 5천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하고 '모세장학회'라는 이름으로 특지를 설립했다. 한국기독교교직장선교연합회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사재 3억원을 출연해 직장선교(사회) 문화원을 설립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펼치고 있다.

11월 조찬포럼

- 일시 : 11월11일 (목) 오전7시30분
- 장소 :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 참가신청 :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5만원 / 1년간 50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개인 - 개인별 출전(단체전 출전선수는 모두 개인전도 신청됨)
- 참가인원 : 104명(26팀) \* 선착순 접수 마감
- 참가비 : 30만원(그린피·카트료·캐디피·오찬·만찬·그늘집 등 포함)
- 신청방법 : 11월17일(수)까지 성함과 연락처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보낸 후 참가비 입금.  
· 문자수신번호 1877-2039, 이메일 jang9869@hanmail.net
- \* 참가비는 골프장 데스크에서 카드 결제도 가능.
- \* 11월18일 이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참가비 환불 불가.

동문바둑대회

- 일시 : 11월14일(일) 09:30-17:00
- 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71동)
- 참가인원 : 300명 (동문, 재학생, 교직원) \*참가비는 없음
- 진행방법  
가. 단체전 : 단과대학, 지부별 5명(후보 1명 추가 가능)  
나. 개인전 : 접수된 기력에 따라 최강, A, B, C, D, E, F조 등 편성  
\* 개인전 출전자는 단체전 출전 불가, 대국방법은 변형스위스 리그로 진행
- 신청 방법 : 10월29일(금)까지 참가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이메일 jang9869@hanmail.net, 팩스번호 02-703-0755
- \* 신청서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12월 수요특강

- 일시 : 12월22일 (수) 낮12시
- 장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연자 :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 前포스코전략대학 석좌교수
- 주제 : 역경! 논어에게 길을 묻다
- 참가인원 : 40명 이내(선착순) ● 참가비 : 무료 (음료 및 도서 제공)

동문골프대회

- 일시 : 11월28일(일) 오전11시45분 티오프
- 장소 : 남춘천CC (033-269-3000)
- 진행방법  
가. 친선팀 : 개인별 출전  
나. 대표팀 : 단체 - 4인 1팀 구성, 단과대학 및 지부별 2팀 출전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까지(문의 : 02-702-2233)
- 참가신청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로 접수
- 참가비 : 신한은행 140-013-055887(서울대총동창회) 입금시 성함과 입학연도 표기
- 신청문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전화 02-702-2233
- \*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올해 동창회비를 납부한 분만 신청 가능

## 6 공지사항

### 회비입금내역(2021.7.21-10.28)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찬조금

권영숙(57회화) 3만원 이민주(76회화) 80만원

### 광고후원금

D-Pack 60만원

### 평생회비

김현정(94조소) 박은희(75회화) 오숙례(74회화) 유종민(60조소) 이민정(03조소) 이지숙(88공예) 정종미(76회화) 최정윤(06동양) 한기욱(62조소)

### 연회비

#### 부회장회비

김순애(78응미) 나성숙(71응미) 서명덕(71응미) 안기순(78회화) 안말환(76회화) 이기조(81응미) 최진희(83회화) 하수경(70회화)

#### 이사회비

강재희(84동양) 김광숙(69회화) 김은정(81회화) 박덕실(81회화) 박혜령(74회화) 배창숙(74응미) 신하순(83동양)

#### 일반회비

강명순(59미학) 강신자(76조소) 강영일(72회화) 강유진(11서양) 경달표(75회화) 고상미(96산디) 권재나(05서양) 권혜정(11동양) 길해연(13서양) 김경애(83동양)

김구자(61응미) 김다희(10동양) 김두진(93서양) 김미경(77응미) 김민경(12동양)  
 김 봄(05조소) 김봉경(02동양) 김상경(87서양) 김선영(86동양) 김성우(87동양)  
 김성희(82회화) 김소선(63조소) 김소정(12동양) 김아영(70회화) 김여경(14조소)  
 김여옥(63회화) 김영호(90조소) 김용경(90조소) 김원경(73응미) 김원선(11공예)  
 김유정(07동양) 김은형(96동양) 김재임(56회화) 김정희(91조소) 김제민(98서양)  
 김종수(93서양) 김지민(14동양) 김진경(82응미) 김춘이(59응미) 김태훈(13조소)  
 김형주(66회화) 김호준(92서양) 김항록(80조소) 김희영(75회화) 나재민(95조소)  
 나형민(91동양) 남재현(00동양) 노명자(63응미) 노성인(73조소) 노오경(16서양)  
 류은선(16동양) 류지선(89서양) 민경호(74응미) 박동진(82회화) 박민희(85동양)  
 박상철(86산디) 박세연(03서양) 박소영(92동양) 박소현(80회화) 박수현(17동양)  
 박영규(84서양) 박요원(56회화) 박재만(83동양) 박주애(11동양) 박현숙(75회화)  
 박현호(11서양) 박희자(64회화) 배수자(63회화) 백혜란(70회화) 변희준(63조소)  
 서길현(91조소) 서동수(86서양) 서재영(71회화) 선우향(91서양) 설화영(74응미)  
 성기완(58회화) 성석진(90공예) 손희옥(68회화) 송윤주(94동양) 송인옥(82회화)  
 송지연(85동양) 신경훈(74응미) 신덕재(60조소) 신영호(89동양) 신정연(61회화)  
 신혜자(61응미) 심영자(61조소) 심현희(76회화) 심효선(99서양) 안서진(석19동)  
 안수경(85공예) 양호일(58응미) 오귀원(75조소) 오성주(61회화) 유길향(79회화)  
 유병익(82회화) 유부강(61회화) 유인수(66회화) 유 황(58회화) 윤옥진(64조소)  
 윤은선(85공예) 윤태영(84서양) 윤태자(62회화) 이경림(86동양) 이경자(57회화)  
 이경희(67응미) 이광춘(석00동) 이광택(80회화) 이길원(69회화) 이명규(73조소)  
 이명주(94조소) 이병석(58회화) 이부연(71응미) 이부용(61회화) 이상은(86서양)  
 이상훈(02동양) 이승령(67조소) 이애자(73응미) 이영기(86동양) 이용규(82회화)  
 이윤정(85동양) 이은경(77회화) 이은산(68회화) 이인경(77회화) 이인애(81회화)  
 이정수(58회화) 이주원(87동양) 이지선(82회화) 이창분(75회화) 이혜민(74응미)  
 이혜원(77응미) 이혜진(03동양) 이홍구(85산디) 이홍전(82회화) 임순자(69조소)  
 장성아(89서양) 장지원(72응미) 장 진(92동양) 전성규(81회화) 정규리(90동양)  
 정동현(67회화) 정두희(97동양) 정세진(91공예) 정승섭(61회화) 정혜리(11동양)  
 정혜주(82회화) 조 윤(59조소) 조창환(86조소) 진영선(64회화) 채현교(90서양)  
 최경주(85서양) 최국강(62응미) 최용건(68회화) 최윤영(96동양) 최인선(11공예)  
 최지원(11동양) 최혜명(61회화) 최희권(58응미) 한석란(71조소) 한영옥(58회화)  
 한운성(65회화) 한정미(97동양) 한젼매(89서양) 한현정(08동양) 현승의(11동양)  
 홍선애(62회화) 홍순모(68조소) 황영애(67조소) 황영희(58회화) 황인혜(65회화)  
 황현숙(66응미)

## 동창회 SNS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 가입시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올려 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 축하기·근조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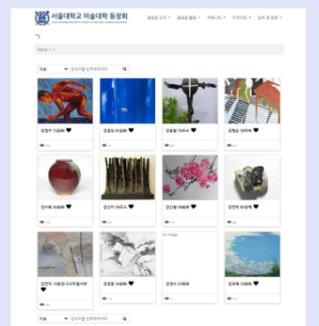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 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mailto:snuarta@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mailto: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카이브에 게재해드립니다

본회 홈페이지([snuarta.or.kr](http://snuarta.or.kr)) 아카이브에는 현재 700명의 작품 및 약력이 게재되어 있으며 방문 횟수는 1일 최대 780회, 1일 평균 100여회를 기록, 지금까지 총 5만5천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재대상도 기존의 시각예술작품 외에 영화, 공연, 저서 등 창작물은 물론, 운영사업체나 프로젝트 등 실적물까지 확대해 전 동문의 아카이브를 제작중입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아카이브에 게재해드리고 기존 업로드 되어있는 회원님들은 요청시 수정, 보완해드립니다.



### 게재신청

메일주소: [snuarta@naver.com](mailto:snuarta@naver.com)

자료: 이름(학번/과), 약력, 창작물이나 사업관련 이미지(3장)와 캡션

게재대상: 금년도 회비납부회원(납부안내는 본 페이지 왼쪽상단)

문의 : 02-555-1946

**동창회 전화번호가 02-555-1946으로 변경됐습니다. 새로운 번호 1946은 모교가 창립된 해인 1946년을 기념하는 번호입니다.**

## 7 회원동정

### 김창열조각상 제막 김창열(48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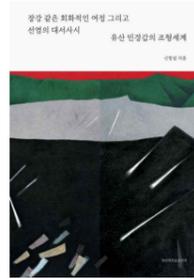
지난 1월 작고한 김창열 동문의 조각상이 그의 제2의 고향 제주에 세워졌다. 제주김창열미술관(관장 최형순)은 10월8일 故김창열 화백 조각상 제막식과 개관5주년기념 음악회를 함께 개최했다. 물방울 작품으로 세계적 위상을 가진 김동문은 오랜 외국 생활에서 귀국한 후 한국전쟁 즈음 제주에 거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총 220점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한 바 있다. 이번에 설치된 조



각상은 검은 돌(오석) 받침대에 청동으로 제작돼 전체 높이는 230cm이다. 조각상은 김동문이 생전에 붓을 든 채 캔버스 앞의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 제작에는 제주추사기념관의 '추사 김정희 상',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상' 등을 제작한 임옥상(68조소) 동문이 참여했다. 임동문은 "조각상은 김창열 화백이 입구에서 걸어 들어오는 관객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 유산 민경갑의 조형세계 출판 민경갑(53회화/1933-2018)

채색한국화의 대가 유산(酉山) 민경갑 동문의 작품세계를 조명한 '유산 민경갑의 조형세계'(영남대학교 출판부)가 나왔다. 민동문은 전통성과 현대성을 조화시키면서 한국화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여러 형식의 실험을 통해 한국화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 작가로 평가 받는다. 이번 신간은 민동문의 작품세계를 연대기적으로 짚어나가며 기록했으며, 작품



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다각도로 살펴 현대 한국화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 신항섭은 머리말에서 "(유산 선생은) 남기신 작품만으로도 한국 현대미술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결코 과할 수 없다"라며 "이러한 결과는 창작에 대한 열정과 작가적인 욕망, 그에 따른 치열한 노력, 한국화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부단한 자문을 통해 연구 정진하는 작가로서의 모범적인 삶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했다.

### 수원시립미술관에 작품기증 한운성(65회화)

한운성 동문이 '지혜가 느린 그림자'(1977), '매듭'(1987), '과일채집'(2002) 등 작품 25점을 수원시립미술관에 기증했다. 기증작품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대표작들에 해당한다. 이번 기증을 통해 수원시립미술관은 한동문의 40년 화력의 시기별 대표작을 소장하게 되었다. 김진엽 수원시립미술관장은



"기증된 소장품은 지속적으로 보존과 관리, 연구를 통해 추후 전시와 교육 등 관람객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교 명예교수인 한동문은 국내 미술 분야 최초로 미국 국무성 장학생인 풀브라이트(Fullbright)로 선발된 서양화가이자 판화가로 한국 현대화단의 주요 작가로 꼽힌다.

### 한국의 빌바오를 꿈꾸는 곳, 남원 김병중(74회화)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쇠락한 공업도시 빌바오를 매년 100만명이 찾는 세계적 관광지로 변모시킨 건 한 미술관이었다. 97년 개관한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은 개관 3년 만에 관광객 약 400만명을 불러 모아, 5억유로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도시에 안

겼다. 한국의 빌바오를 꿈꾸는 전북 남원에는 2018년 3월 문을 연 남원시립 김병중미술관이 있다. 김병중 동문이 자신의 작품 400점을 고향인 남원시에 기증하면서 건립 토대를 닦았다. 처음엔 지역 주민들 사이 입소문이 나더니, 3년 만에 전국에서 20만명이 미술관을 다녀갔다. 거리 두기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 시기임에도 주중 평균 300명, 주말이면 600명이 찾는다. 3개 전시실로 구성된 미술관은 평소엔 김동문의 작품들을 상설 전시한다. 미처 공개하지 못한 작품은 1년에 한두 차례 특별전으로 소개하는데, 오는 11월14일까지 미공개 작품을 중심으로 한 '생명의 숲과 바다전이 열린다.

### NFT 작품 판매 노준(89조소)



NFT아트 전문레이블 '아트네틱'을 운영하고 있는 키인사이드가 클립 드롭스를 통해 노준 동문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지난 10월5일 밝혔다. 노동문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각 작품으로 표현한다. 작가가 표현하는 동물 캐릭터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을 닮아있다. 이는 귀여운 얼굴의 동물들에게 사람의 몸과 같은 형태를 허락

하여 그들과 우리가 어찌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아트네틱의 신규 크루로 합류한 노동문의 NFT 작품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국내 대표 NFT 작품 유통 플랫폼 '클립 드롭스'를 통해 지난 10월7일 9시부터 한정 수량으로 판매됐다. 키인사이드 조정민 대표는 "아트네틱은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NFT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창작자 경제)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라며, "국내 문화예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 롯데 디자인경영센터장 선임 배상민(박12졸/디자인)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출신의 배상민 동문이 지난 9월 롯데지주 디자인경영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선임됐다. 배동문은 레드닷(독일), iF(독일), IDEA(미국), 굿 디자인(일본) 등 세계 4대 디자인어워드에서 40회 이상 수상한 국내 최고의 디자인 전문가로 손꼽힌다. 배동문은 채널과 식음료 계열사의 제품과 서비스 공간 등의 디자인 혁신을 담당한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배상민

사장이 이끌 디자인경영센터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의 디자인 혁신은 물론, 창의적인 조직문화 강화 및 기업 전반의 혁신을 가속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동문은 1971년생으로 뉴욕 파슨스디자인스쿨 및 모교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파슨스디자인스쿨의 최연소 교수를 역임하였고, 2005년 한국에 돌아와 카이스트에 사회공헌 디자인연구소를 만들어 디자이너 제자를 양성해왔다.



### 뎀(MEUM) 투자유치 소식 김휘재(12동양)

팁스(TIPS) 운영사인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조성한 111억원규모 5호펀드의 첫 투자처로 메타버스 스타트업 '뎀'(대표 김휘재)을 선정해 시드투자를 단행했다. 국내 유일 미술분야특화 메타버스 플랫폼 뎀은 지난해 9월에 설립되었다. 플랫폼 '뎀'을 이용하면, 창작자는 본인만의 스튜디오를 만들어 작품을 배치하고 전시를 진행할 수 있다. 박제현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각종 메타버스들을 활용한 플랫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뎀'처럼 문화 예술, 그중에서 미술 분야에 집중한 메타버스는 국내 최초다. 미술 작품을 메타버스로 전시하고, 온-오프 연계 전시 등 코로나19로 다소 침체된 예술업계와 전시시장에 새로운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애틀랜타 신인문학상 수상 김철호(67응미) 동문



김철호 동문의 수필 '벽차오르는 기쁨'이 제6회 애틀랜타 신인문학상 수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동문은 수상소감으로 '글쓰기를 하며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다. 글을 쓰고 나서도 좋은 글이 되도록 무수한 퇴고의 과정을 거쳐야 정제된 순금 같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글

을 쓰며 느끼게 된 것은 비록 아직 초보의 수준이지만 새로운 자존감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물물이 퍼낼수록 계속 솟아오르는 것처럼 잊었던 지난날의 일들도 더듬어 갈수록 내 기억 안으로 새롭게 솟아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잊고 지낸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보는 여행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주재원으로 도미했다. 1981년부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거주하다 2013년부터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거주하고있으며, 2020년 연합시니어행복대학의 3대 학장을 지냈다.

이인성미술상 수상 및 개인전 강요배(72회화)



대구미술관이 10월13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제21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 '강요배: 카네이션-마음이 몸이 될 때'를 개최한다. 이인성미술상 제21회 수상자인 강동문은 회화 매체의 확장과 깊이를 더하며 시대와 역사에 충실하고 다양한 화풍의 변모를 추구한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대자연의 풍경을 담은 대형 회화, 자연과 소리에 집중해 강동문이 촬영한 영상작업, 대구와 경

산의 역사적 사건에 착안해 경북 상주의 비단을 활용한 설치작업, 그리고 이인성 화백의 대표작을 모티브로 한 회화 작업 등 그의 폭넓은 작업세계를 펼쳐 보인다. 성육신(成肉身)의 어원인 인카네이션(incarnation)에서 영감을 받은 전시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그의 작업 태도는 체화(體化)다. 작품들은 그의 생각, 사상, 이론 등이 몸에 배어 자기 것이 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전시 출품작 40여점 중 대다수는 올해 신작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회화, 영상, 설치, 조소 작품 등 19점을 제작했다. 개막식은 제22회 이인성미술상 시상식과 함께 11월4일 개최하며, 강동문은 '강요배 작가와의 대화' 등 전시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의 만남의 장을 가질 예정이다.

강정일당상 수상 이지수(79조소)

성남문화원은 한국 문화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조선후기 여성 문사 강정일당(1772~1832년)의 고귀한 인품을 기리고자 제정된 제23회 강정일당상 수상자로 이지수 수호갤러리 관장을 선정했다고 지난 10월14일 밝혔다. 이동문은 20년전 성남에 정착해 친정어머니 김인옥 여사와 시어머니 흥영자 여사의 품위 있는 언행과 교육 속에서 큰 가르침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효행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동문이 중증 장애아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시



작한 이후 목욕봉사와 미술놀이 수업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 것은 조부모의 봉사와 문화사랑 정신을 이어받은 인생철학이 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이동문은 2008년부터 수호갤러리 관장으로 근무하며 공모를 통한 신진작가 발굴 및 기획전시 지원사업을 펼쳐 역량있는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무료전시를 통해 예술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시관람을 제공하고 있고, 청소년 대상 체험학습도 진행하고 있다.

디자인코리아 근정포상 수상 이은실(82응미)



이은실 동문이 '디자인코리아 2021'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주최로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디자인코리아 2021'은 '디자인, 혁신을 주도하다 : 탄소중립을 주제로 진행됐다. 올해는 디자인 비즈니스, 디자인 스타트업, 디자인 잡페어 등 온오프라인 전시관이 운영됐으며 690

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또 탄소 중립 주제에 맞는 대·중견기업 혁신제품 50점, 우수디자인기업 및 스타트업 100개 기업, 우수디자인 선정 상품 80점 등 약 2000여점의 제품 등이 전시됐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와 동 대학원 졸업후 보스턴대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대학원에서 디자인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국회, 서울해치브랜드,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인천아시안게임 2014,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기획 및 총괄책임자로 다수의 정부 및 지자체 브랜드 개발에 기여한 바 있다.

홍진기창조인상 수상 이수인(95조소)



이수인 동문이 지난 10월6일 오후 서울 중구 HSBC 빌딩에서 열린 제 12회 홍진기창조인상 시상식에서 사회부문상을 수상했다. 게임기획자 출신인 이동문은 사회적 상황이나 개인적 여건 때문에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동문이 이끌고 있는 기업 에누마의 사명은 하나하나 열거한다는 뜻의 영어(enumerate)에서 따왔고, 아이를 한명

한명 돌본다는 뜻을 담고 있다. 토도수학·영어, 킷킷스쿨 같은 에누마의 교육 앱은 교사가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읽기, 쓰기, 셈하기 같은 기초 교육과정을 완수하도록 돕는다. 이동문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비롯한 국내외 단체의 지원과 협력 아래 국내뿐 아니라 탄자니아 등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나서고 있다. 한편 홍진기창조인상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 발전기에 정부기업·언론 분야에서 창조적 삶을 실천한 고 유민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2010년 제정되었으며, 매년 창의적인 업적과 발전 가능성을 보인 인재를 발굴해 시상한다.

올해의작가상 후보선정 오민(98산디)·김상진(00조소)



오민(98산디/왼쪽사진), 김상진(00조소) 동문이 '2021 올해의작가상' 후보로 선정됐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올해의작가상전은 SBS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해 온 시상제도로, 미술계에 새로운 담론과 방향성을 제시 해 왔다. 올해는 역사적 상황과 팬데믹

시대의 현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드러낸 4인이 후보로 뽑혔다. 오동문은 5개의 화면과 사운드설치 작업으로 전시공간을 무대이자 실험실로 탈바꿈시켰다. 김동문은 영상 설치와 사운드, 조각을 통해 실제와 가상의 경계에 존재하는 오늘날 인간의 모습을 조명했다. 10월20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전시기간 중 2차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수상자가 발표된다.



## 9 회원동정-전시

### 화가의 사람, 사람들 서세옥(46회화/1929-2020)

성북구립미술관은 10월7일-12월5일 '화가의 사람, 사람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수묵 추상의 선구자인 산정 서세옥 동문을 중심으로 성북지역의 주요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조망해보고자 기획됐다. 2020년 서동문의 타계 이후, 그의 유족들이 성북구립미술관에 기증한 작품 및 컬렉션을 중심으로 구성된 본 전시에서는 서동문의 주요 작품들과 그가 일생 동안 수집한 컬렉션 및 미공개 작품 일부가 새롭게 공개된다. 한편 한국 문인화의 정신과 전

통을 잇는 마지막 세대의 한국화가로 불리는 서동문은 예술적 정취가 가득한 성북지역에서 60년 이상을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펼쳐왔으며,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흐름을 주도했던 주요 예술가들과 교류해왔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성북구립미술관은 서동문의 전작과 컬렉션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계승할 수 있는 연구 및 기획 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정신과 예술의 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윤형근의 기록' 출간기념전 윤형근(47회화/1928-2007)

한국 단색화의 거목 윤형근 동문이 생전에 남긴 화첩과 메모, 서신 등의 기록을 엮은 단행본 '윤형근의 기록' 출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10월22일부터 11월14일까지 PKM갤러리에서 열린다. 단행본에는 동료 예술가들과의 여행담, 장인 김환기 화백과의 추억, 가족들에게 쓴 편지 등과 함께 윤동문의 오랜 벗이었던 조각가 최종태,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의 글이 실려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단행본에 수록된 미공개 드로잉 수십 점과 초기작을 포함한 주요 회화 작품, 편지와 수첩, 사진 등 다양한 자료들이 처음 공개된다. 윤동문의 작품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으로 참혹한 시대에 청년기를 보내 여



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경험하면서 겪은 극도의 분노와 상실이 하늘의 청색과 흙의 다색 안료를 섞어 만든 먹빛에 가까운 오묘한 검정빛으로 표출된 것이 특징적이다. 윤동문은 1947년 모교에 입학하였으나, 미군정이 주도한 '국대안(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제적당했다. 1950년 6.25 전쟁 직후에는 대학시절 시위 전력으로 보도연맹에 끌려가 학살당할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였다. 1954년 모교 복학을 시켜주지 않아 홍익대 서양학과에 편입하여 대학을 졸업했으며 경원대 총장을 역임했다.

### 한국적 공간추상의 기수 하인두(50회화/1930-1989)

한국 현대미술 1세대 추상화가 하인두 동문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전시가 2곳에서 동시에 열린다. 서울 부암동 갤러리웅과 갤러리라온에서 10월 7일에서 11월 6일까지 열리는 '하인두, 한국적 공간추상의 기수'전이다. 갤러리웅에서는 추상회화, 갤러리라온에서는 드로잉 종이 작품들(Works on paper)을 선보인다. 갤러리웅 최웅철 대표는 "2곳의 전시 구성을 통해 추상화가 하인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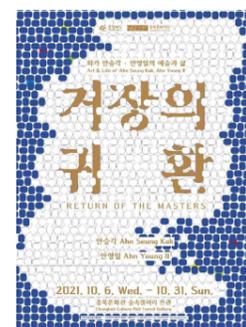


자율로운 생각과 창작의 방향과 작품 양식의 발전과정,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동문은 모교 졸업 후 김창렬, 박서보 등과 더불어 한국적 앵포르멜 및 추상 표현주의 화풍의 개척에 기여했다. 한국의 전통과 불교 사상을 기조로 한 비정형의 추상을 선보였다.

### 거장의 귀환 안영일(54회화/1934-2020)



안승각 안영일 부자의 예술과 삶을 조명하는 '거장의 귀환' 전시가 지난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일찍이 미술로 천재성을 발휘하며 1966년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 현대미술의 작가 반열에 오른 아들 안영일(사진) 동문과 충북미술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여하며 30여년간 충북화단을 이



끌어온 서양화가 안승각을 고향으로 초대하는 전시이다. 특별히 이번 전시를 위해 유가족과 갤러리세움이 먼 타국에서 작품을 보내 고향을 떠나 수십 년이 지난 두 부자의 예술흔적의 공백을 메우는데 단초를 제공하였다. 물의 화가로 널리 알려진 안동문의 대표작인 water 시리즈와 캘리포니아 및 음악 시리즈, 안승각 작품을 포함하여 총 29여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한편 안동문은 2002-2005년 미국정부의 미술대사로 임명된 유일한 한인이기도 하다.

### 백현옥전 백현옥(58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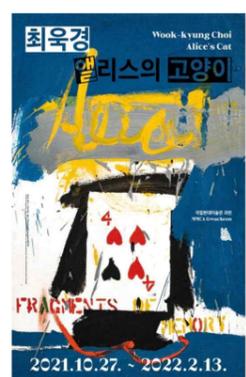
'김세중미술관기획초대-백현옥전'이 지난 10월5일부터 오는 11월7일까지 용산 김세중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백현옥 동문은 나무, 금속, 돌 등 매체의 물성을 활용해 제작한 다양한

인체 조각으로 자연을 표현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체 조각을 비롯해 만남을 주제로 한 '견우와 직녀', 북두칠성으로 구현된 '여름밤의 별자리', 평화통일의 염원을 표현한 '소 때'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은사 김세중 선생을 회상하며 제작한 기념조각들(습작)도 함께 전시된다. 한편 백동문은 모교에서 조각을, 한양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다. 1970년대 대한민국전람회(국전)에서 4회 특선으로 입상하였으며 그중 1974년, 1976년에는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후 근정포장, 대한민국미술인의날 본상, 김세중 조각상 등을 수상함으로써 대표적인 한국 현대 조각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현재는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 최옥경, 앨리스의 고양이 최옥경(59회화/1940-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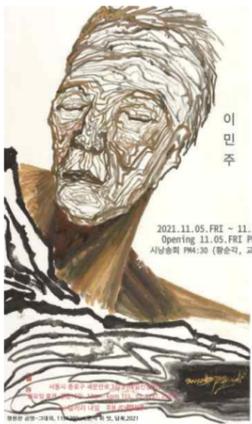


최옥경 동문의 회고전이 지난 10월27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린다. '최옥경, 앨리스의 고양이'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추상미술가 최동문의 예술 세계 전반을 재조명하고, 미술 교육자이자 시인이기도 했던 그의 전방위적인 활동 이력을 총체 적으로 조망하고자 마련된 회고전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시집과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대한 작가의 관심 등 최동



문의 미술이 문학과 연계되는 다층적인 지점들에 주목해 그의 작업 전반을 새롭게 읽어본다. 최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유학 후 화가이자 미술 교육자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미술가, 교육자, 시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동문은 주로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영향을 수용한 미국적인 화가' 혹은 '요절한 비극적인 여성작가로 인식되어 왔다. 이번 전시는 그의 작업을 동시대 현대미술 및 문학과 관계 를 통해 다각도로 조명함으로써 그의 예술이 위치한 좌표를 재탐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영원한 공명-모(母) 이민주(76회화)



이민주(본회 상임부회장) 동문이 '영원한 공명-母'를 주제로 11월5일부터 11월18일까지 종로구 갤러리내 일에서 56회 개인전을 갖는다. 2001년 "아버지를 통한 나의 아니무스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가진 후 20년만이다. 이번 전시는 어머니의 명상을 통한 나 자신의 발견이라는 내용을 담은 40여 점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문 역시 어머니이며 할머니로서 본인이나 본인의 어머니 즉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행해야 하는 수행의 과정을 말하고 싶어 한다. 이동문은 공명을 통한 자아성찰로 나아가 노

자의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가르침에 고마워하면서 자신을 비취주는 거울 같은 물이야말로 정신적 성찰의 계기가 된다고 믿는다. 어머니의 명상은 물에 비친 생명의 모습들로도 나타나고 우주와 같은 원속에 비친 상징적인 형상으로도 표현된다. 또한 어머니를 상징하는 이 대지가 나무를 자라게도 할 수 있지만 썩게도 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고 있다. 부드럽지만 강하고, 약하지만 치열하기도 한, 편안한 보금자리 같지만 간혹 생명의 막바지에서 벼랑 끝에서 있는 동물이나 나무와 같은 강박한 어머니의 이미지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서울대, 동국대, 고려대, 경희대에서 강사 및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 인도 현대작가교류회 회장, 삼심아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동문은 전시기간 중 팬데믹 이후의 미술세계를 제시하기 위해 인도에서 열리고 있는 The Artist Studio Connect at Jaipur Art Summit 2021에 한국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숨, 쉽 정채희(77회화)

정채희 동문의 개인전 '숨, 쉽'이 평창동 누크갤러리에서 지난 10월 8-29일 열렸다. 정동문의 옷칠화 작업과 작고 동글한 몸통 다리 없는 조각상 '동자'를 빛낸다. 이번 전시에서도 정동문의 두 작업을 모두 감상할 수 있었다. 본 전시실에 옷칠 회화작품 20여점이 전시되고, 작은 전시실에는 고택에서 얻은 21

개의 고목과 함께 종이 풀을 썬어 만든 동자 21점이 설치됐다. 정동문의 작업은 수천, 수만 번의 손길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나무판을 자르고 다듬어 칠하는 밑 작업부터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하듯 한다는 정동문은 "작품에서 단순하게 재료나 소재를 그림 속으로 잘 옮겨 놓은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이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상-꽃비 김은현(82조소)

김은현 동문의 여덟번째 개인전 '명상-꽃비'가 안국동 갤러리담에서 10월20일부터 11월2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동문의 신작 2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김동문은 명상을 하며 얻는 희열과, 세상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작품을 통해 전한다. 작업은 흙이라는 물성을 손으로 치대면서 흙덩어리에서 주는 순간을 포착하여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약간의 손자국을 내어 눈과



입의 윤곽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김동문의 얼굴들은 흙으로 빚은 명상이라 불린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업들 역시 명상에서 느끼는 희열과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전의 작업들이 고요한 명상의 작업으로 섬세하고 단아한 형태로 표현된 것에 비하여 최근 작품에서는 좀더 거칠고 속도감있는 손자국이 드러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와 이대 대학원에서 조각을 공부했다.

비우고 채우기-목포에서 제주까지 김일태(84조소)



김일태 동문의 개인전 '비우고 채우기-목포에서 제주까지'가 지난 9월28일부터 10월10일까지는 광주 산수미술관에서, 10월 18일에서 30일까지는 서울 파비온드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개인전은 김동문이 2019년부터 2021년 여름까지 광주와 목포, 제주로 작업공간을 찾아 떠나면서 느꼈던 심상을 담은 16점의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비우고 채우기'라는 제목에서 보여주듯 김동문은 "세상

을 새롭게 보려면 마음을 비우는 행위가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자연과 일상을 바라보고, 그때 떠오르는 심상을 기하학적 형태와 파스텔톤 색채로 감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김동문은 "이번 전시는 낯은 도시 풍경에 대한 인상들을 조각적으로 해석해 담백하고 유쾌한 선과 색으로 기록한 그림들"이라며 "구체적인 서사와 사유는 관람객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와 동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고 현재 조선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생활의 발견 민재영(86동양)

민재영 동문의 개인전 '생활의 발견'이 10월7일부터 11월28일까지 성곡미술관에서 열린다. 작품 14점을 통해 민동문이 구축해온 예술세계를 되돌아보는 전시다. 민동문은 봄비는 지하철 객차, 짝 막힌 도로 위의 자동차들,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 인터뷰 중인 정치인 등 현대인의 일상을 동양화 재료와 기법으로 그려낸다. 픽셀을 쌓아올리는 디지털 제작 방식과 동양화풍이 만나서 만들어낸 회화가 색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1999년작 '내



일이 오기 전 II'부터 올해 작 '내일이 오기 전'까지 22년간 민동문이 그려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바쁘게 오가는 회사원들 '직장과 교통정체 '오늘', 비오는 날 짝 막힌 도로 '출구 정체' 등 이미지 대부분은 삭막한 풍경이다. 민동문은 "실험적인 기법을 통해 평범한 일상에서 여유와 생명의 힘을 발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The Costume of Painter - At the studio 배준성(86서양)



배준성 동문의 개인전 'The Costume of Painter-At the studio'이 10월22일부터 11월22일까지 삼청동 아트파크에서 열리고 있다. 배동문 작품의 특징인 렌티큘러(Lenticular)는 관람자가 작품을 보는 방향에 따라 겹친 그림이 교차해 '움직이는 그림'으로도 불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이들의 낙서, 폭포와 숲으로 이뤄진 대자연, 부분적으로 오려낸 명화를 주제로 초현실적인 화면을 구성한 '작



업실에서 시리즈'등 20여 점을 선보인다. 아이들의 낙서를 비롯해 폭포와 숲으로 이뤄진 대자연, 부분적으로 오려낸 명화와 같이 각기 다른 주제를 중심으로 작업실 속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다. 배동문 특유의 세밀한 회화 기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를 낯설게 느끼는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배동문은 모교 및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1995년 정경자미술문화재단 신인예술가상과 2000년 문화관광부주관 오늘의 젊은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프랑스 퐁피두 센터, 프랑스 보자르미술관, 루비통재단 등에 소장되어 있다.

라이트박스 김수정(87산미)



라이트 박스  
Light Box  
김수정  
Sujeong Kim  
2021. 10. 1 - 10. 15

모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김수정 동문이 지난 10월 3일에서 14일까지 경기 파주시 헤이리마을 갤러리피랑에서 '라이트박스' 개인전을 열었다. 작품도, 관객도 없는 미술관에 햇빛이 스며드는 것을 장시간 저속으로 촬영한 영상 작품들을 선보인다. 느리고 관조적인 영상에선 빛

의 미묘한 움직임 볼 수 있다. 김동문은 "작품이 없는 전시장과 빛에 주목해 시각 예술의 형식과 내용, 일시성과 영속성, 비움과 에너지에 대해 생각하며 작업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School of Visual Arts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한국조폐공사 등 국공립기관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들과 디자인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말부터 발급될 예정인 대한민국 차세대 여권디자인의 기획과 연구를 총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동덕여자대학교와 국민대학교 전임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모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식蝕 신건우(97조소)

신건우 동문의 개인전 '蝕(식)'이 평창동 갤러리2에서 10월7일부터 11월6일까지 열린다. 신동문은 이번 개인전에서 오랫동안 탐구해온 '식蝕'의 개념을 표현한 12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신동문은 세상을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 의식과 무의식, 물질과 비물질, 존재와 부재, 탄생과 죽음 등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가 공존하는 곳으로 보고,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형태가 없는 어떤 것, 그러나 분명 존재하는 것.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식蝕



이다. 이 개념은 추상적인 원형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구도자나 수행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신동문은 자신의 작업을 복기했을 때, 시기마다 신, 종교, 신화, 사회 문제 등 지금까지 다뤄왔던 다양한 주제를 관통하는, 기존의 개념이나 단어로 명명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을 '식'이라고 명명했다. 신동문은 모교와 동 대학원 졸업후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9 랜드세큐리티그어워드를 수상했으며, 2013-15 갤러리퍼플 레지던시와 Land securities Studio 입주작가이다.

실시간 연옥 박재훈(05서양)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박재훈 동문이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안공간 루프에서 열린 '실시간 연옥Real-time Limbo'에서 영상 설치작업 등을 통해 우리 시대의 '연옥'을 보여줬

다. '연옥'은 특정 종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을 말한다. 이 연옥이라는 공간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정화되길 희망하는 이들로 채워져 있다. 전쟁, 난민, 배고픔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반대편엔 명품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있다. 디지털 조각가이자 애니메이터, 시뮬레이터인 박동문은 이러한 세계를 자신만의 시선으로 그려냈다. 그는 조물주가 되어 가상의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의 풍경을 담아낸다. 대안공간 루프는 그의 작업이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쉬(Hieronymus Bosch)의 지옥도에 등장하는 인간을 괴롭히는 고문 도구와 특유의 기괴함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종근당예술지상전 유현경(05서양)

제8회 종근당예술지상전이 10월7일부터 18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2019년 종근당예술지상에 선정된 유현경 동문 외 2명의 작가가 3년간의 창작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회화 작품 40여점이 전시되었다. 세 작가는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과 갈등에 대한 고민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었다. 유동문은 과감한 붓터치와 여백을 통해 인간관계의 단절과 공허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는 특히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시를 함께 진행한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실제 전시장과 동일하게 작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종근당홀딩스는 2012년부터 매년 3명의 신진미술작가를 선발해 현재까지 총 30명의 미술작가를 지원해왔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1인당 연간 1천만원의 창작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다각선 박호은(10서양)



박호은 동문의 초대전 '다각선'이 9월 18일부터 11월14일까지 안산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2021경기청년작가초대전은 청년작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를 연고로 활동하는 청년작가를 초청하여 신작활동을 지원하고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선정된 박호은 동문은 미술관 건축 폐기물인 유리벽판을 전시의 소재로 변용하여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처럼 미술관의 건축공사 상황을 적극 활용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시시각각 발생하는 삶의 사건과 해프닝에 대응하며 서서히 성장하는 개인과 변화하는 시점, 그에 따르는 현실 이면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 '다각선(Diffraction)'은 꺾임을 반복해도 진행을 멈추지 않는 선의 형태를 빌려 여러 갈래로 향하는 삶의 열린 가능성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졸업 후 텍스트, 회화, 설치작업 등을 통해 사회 비판 메시지부터 내면의 강박과 소통 등 개인 문제 등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다.

아이템 인벤토리 박소라(16서양)



박소라 동문의 개인전 '아이템 인벤토리'가 지난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게임 공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게임 아이템과 의상 등 디지털 그래픽 요소를 전통적 재료인 세라믹으로 재구성해

소개했다. 박동문은 "웨어러블 디자인의 심미적, 개념적인 요소를 시작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체가 기술과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몸 이미지와 신체 정보가 게임 공간과 같은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며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디지털 작업을 세라믹과 같은 수공예적 전통 방식에 혼합한 작품으로 세계관을 넓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와 모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하고, 런던 골드스미스대학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박동문은 Bloomberg New Contemporaries 2021년 작가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울회 45회 정기전시회 개최**

모교 여성동문작가회 한울회(회장 정옥란)가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전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제45회 정기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에는 72명의 여성 동문작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개막행사에 참석한 본회 권영걸(69응미) 회장은 "한울회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동문들의 아름다운 동행이며, 동양화 서양화 조소 공예가 함께하는 행복한 어울림이다. 작품에는 서울대미대의 아카데미즘의 전통이 배어있고 76년간 이 나라 미술교육의 모본이 되어온 대학의 긍지가 보인다. 한울회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삶 속에서 예술을 실천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치열함의 또 다른 모습이며, 늘 깨어 있음의 결과"라고 치하했다. 한울회 정옥란(62응미) 회장은 "우리의 일상을 우울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은 계속하면서 더 나은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를 갈망하기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맥을 이어 전시회를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회원간 서로 따뜻한 격려와 희망을 나누게 되기를 바라며 전시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움츠러든 힘든 일상을 잠시 잊고 마음의 위안을 얻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교 김성희(82회화) 학장은 축사를 통해 "한울회가 창립된 1980년대는 사회적으로 고정관념이 해체되는 시기였으나, 아직도 여성으로서 지속적인 작가활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때였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성 동문들은 서로에게, 선배와 후배가 함께 격려하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한울회 전시에는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이 작업해온 소중한 예술정신을 느낄 수 있다. 생활 속의 아름다움과 일상의 풍경, 이상적 세계, 조형적 실험, 전통의 미감 등 저마다 다양한 방향과 개성으로 풍성하고 창의적인 예술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한울회는 1980년 10월 관훈미술관에서 1회 전시를 시작으로 1982년 미국 LA 전, 2000년 프랑스 파리전, 2006년 인도 뉴델리전, 2009년 일본 도쿄전 등 국외 전시를 비롯 서울, 부산, 제주, 진부령 등에서 정기전시회 및 특별전시회를 가져왔으며 2021년 10월 한전아트센터에서 제45회 전시를 성황리에 마쳤다.

**KIAF 2021 참가동문**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개최됐다. 이번 전시에는 김덕용(81회화, 이화익갤러리), 김병중(74회화, 갤러리가이아), 김상경(87서양, 갤러리고도), 김종학(56회화, 조현화랑), 김수영(90서양, 원앤제이갤러리), 김순기(66회화, 아라리오갤러리), 김창열(48회화, 갤러리현대), 김춘옥(64회화, 조선회랑), 박민희(85동양, 박종호(99서양, 갤러리세인), 박현주(87서양, 갤러리J), 서도호(81회화, 리만머핀갤러리), 서용선(75회화, 올미아트스페이스), 손문자(62응미, 윤갤러리), 손희옥(68회화), 신수진(91서양, 갤러리세인), 심문섭(61조소, 가나아트갤러리), 양혜규(90조소, 국제갤러리),



이강소(61회화, 갤러리현대), 이우환(56회화, 갤러리현대), 이혜민(74응미, 청화랑), 정상화(53회화, 갤러리현대), 정직성(95서양, 갤러리아트파크), 정창섭(46회화), 최진희(83서양, 갤러리고도), 한운성(65회화, 이화익갤러리) 동문 등이 참가했다. 올해 KIAF는 개막일 하루 동안 5천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인파로 북적였고, 첫날에만 350억원, 5일 동안 총 650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아트페어 매출 기록을 갱신했다.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하다. 연락처 : 02-783-7080

BOX 가격표							
호	가로	세로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1	22.7	15.8	5,000	14.0	4,500	12.0	4,0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